

「NHI-Live(10-12월)」 발간 기사 목록

vol.52

구성	주요내용
NHI News(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우즈베크와 양해각서(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외교전략과 한미일 3국 협력변화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출연, 실시간 유튜브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교육·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말레이시아 공동 주체 세미나, 공무원 역량강화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새로운 해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 11월 28일 유튜브 실시간 공개강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훈련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천무상 교수 대통령상 영예
NHI Plus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란한 불빛이 반짝이는 뜻깊고 행복한 연말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크리스마스 홈 파티
기 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 이벤트) 웹진 기사 내용 관련하여 퀴즈 구성(12월)

국가인재원, 우즈벡과 양해각서(MOU) 체결

—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원장 김채환)은 10.27.(금) 개최된 '2023 NHI 글로벌 컨퍼런스' 국제행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인사청(ARGOS)과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이하 'MOU'라 함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MOU의 주요내용은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 협력, 전문가 및 교수진 교류, 양국의 경험 및 지식 교환, 워크숍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국가인재원은 그동안 미국 인사관리처(OPM), 프랑스 국립공무원연수원(INSP, ENA), 호주·뉴질랜드 정부학교(ANZSOG), 베트남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HCMA) 등 전 세계 18개국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가 간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해외 선진 트렌드를 학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주요 선진국과는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는 공무원 교육을 통해 우리의 국가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10.27.)>



<남아공 국가공무원교육원 MOU(10.27.)>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MOU(11.1.)>

“한국의 외교전략과 한미일 3국 협력 변화는?”

— ‘10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출연, 실시간 유튜브 강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10월 24일 ‘세계(글로벌) 중추국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하고, 홍현미 케이티브이(KTV)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외교전략과 동맹관계 변화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 ▲한미일 협력 등이다.

1부 ‘세계 중추국가’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적인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해 토론하고,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외교 동력 강화 등을 논의했으며,

2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는 군사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와 안보·경제 관련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토론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유연한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중추외교와 한미일 협력

LIVE  유튜브 인재교육TV 실시간 송출

'23. 10. 24.(화) 14:00 - 15:0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043-931-6530~1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교육 교류·협력 확대

— 한·말레이시아 공동 주최 세미나, 공무원 역량강화 논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원장 김채환)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무원(COTI/NHI EDP(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Alumni)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말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1년부터 국가인재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창회를 조직해 매년 인사행정 및 교육 관련 주제를 선정해 국가인재원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행정 발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셀랑고주 소재 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인재원 김채환 원장은 국가인재원 수료생이기도 한 즐카플리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 (Zulkapli Bin Mohamed) 및 인재개발 담당자들과 회담을 갖고,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교류를 강화했다.

즐카플리 행정처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 교육생들의 교육 일정을 늘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채환 원장은 한국대사관이 한국에 교육연수를 다녀온 말레이시아 고위관계자 등 약 500명을 초청한 총동문회에도 참석하여, 1988년 국가인재원의 교육과정 수료생인 말레이시아 최고위직 조하리 하원의장(Jahori Bin Abdul)을 접견하고, 한국 연수 당시의 경험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한 한·말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재원은 말레이시아 고위공무원 대상 지도력(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에 특화된 라작스쿨(Razak School of Government) 아즈함 자이날 원장과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간 말레이시아 공무원을 교육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9개 과정 1,784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뿐 아니라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NHI 수료생 합동세미나(11.16.)>



<말레이시아 NHI 수료생 합동세미나(11.16.)>



<말레이시아 NHI 수료생과 자원봉사(11.17.)>



<말레이시아 NHI 수료생과 자원봉사(11.17.)>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 면담(11.15.)>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새로운 해법은?”

—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 28일 유튜브 실시간 공개강좌 진행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11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인재교육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YTN)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었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커뮤니티)와 세대 구축·통합 등을 토론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번 공개강좌가 공직자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

인재교육.tv

'23. 11. 28.(화)
14:00-15:50

▶ 유튜브 인재교육TV 실시간 송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이현웅
YTN 아나운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도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 훈련기관 선정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천무상 교수 대통령상 영예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12월 13~14일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제41회 공공인적자원개발(HRD) 경연(콘테스트)'을 열고,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 시상했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천무상 교수(3급 차장)가 대통령상을, 중앙경찰학교 조성환 교수(경사), 한창현 교수(경위)가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천무상 교수는 '안전한 전력공급의 뼈대!(부장주란 도대체 무엇s 인고?)' 라는 제목으로 신입직원 등 직무교육에 대해 격자무늬 2차원 문자(QR코드), 가상현실(VR) 체계 등을 활용한 강의 기법이 우수 교수학습으로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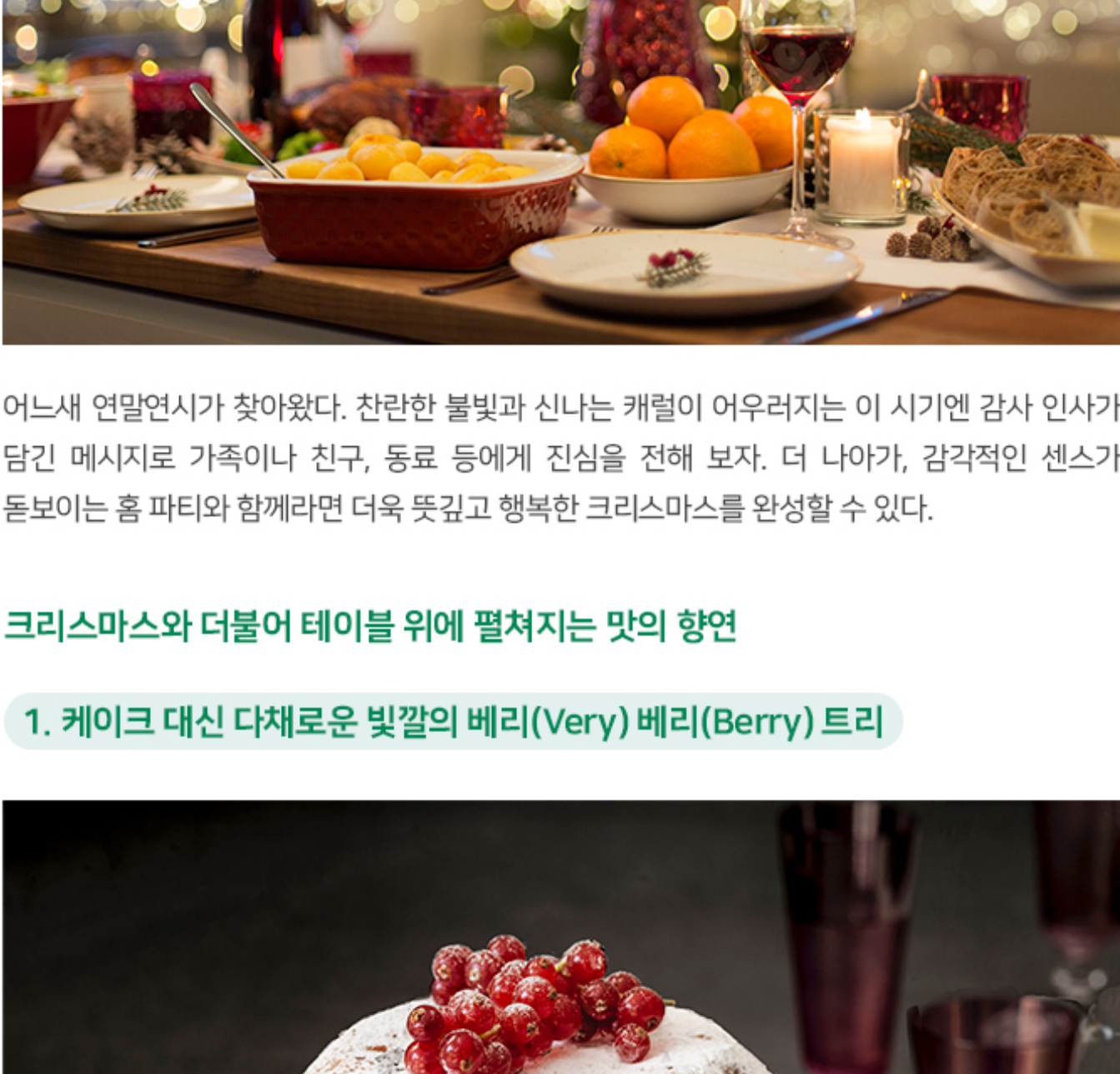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도록 재설계한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이 선정됐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은 특히 8단계의 요구분석 기법을 활용한 공공인적자원개발(HRD) 환경 변화 추세에 맞는 교육방법 및 전력산업 변화에 따른 강화 역량을 도출해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매체를 설계하고 현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찬란한 불빛이 반짝이는 뜻깊고 행복한 연말연시

— 감각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크리스마스 홈 파티 —



어느새 연말연시가 찾아왔다. 찬란한 불빛과 신나는 캐럴이 어우러지는 이 시기엔 감사 인사가 담긴 메시지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진심을 전해 보자. 더 나아가, 감각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홈 파티와 함께라면 더욱 뜻깊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완성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와 더블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맛의 향연

1. 케이크 대신 다채로운 빛깔의 베리(Very) 베리(Berry) 트리



최근 SNS에선 알록달록한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베리 베리 트리가 인기다. 청포도나 사인 머스켓, 딸기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치즈 별로 장식하면 유명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못지않다.

베리 베리 트리 레시피

당근 1개 / 사과 1알 / 청포도나 사인 머스켓 1송이 / 딸기 8~10개 / 두툼한 치즈 / 나무 이쑤시개

1. 깨끗이 세척한 사과 위에 겹질 깎은 당근을 이쑤시개로 고정한다.
2. 앞서 만든 틀의 아래부터 청포도나 사인 머스켓, 딸기를 이쑤시개로 꽃아 골고루 쌓아 올리며 트리 모양을 형성한다.
3. 두툼한 치즈를 별 모양으로 잘라 가장 꼭대기에 꽃으면 완성이다.

2. 맛살 목도리를 두른 눈사람 유부초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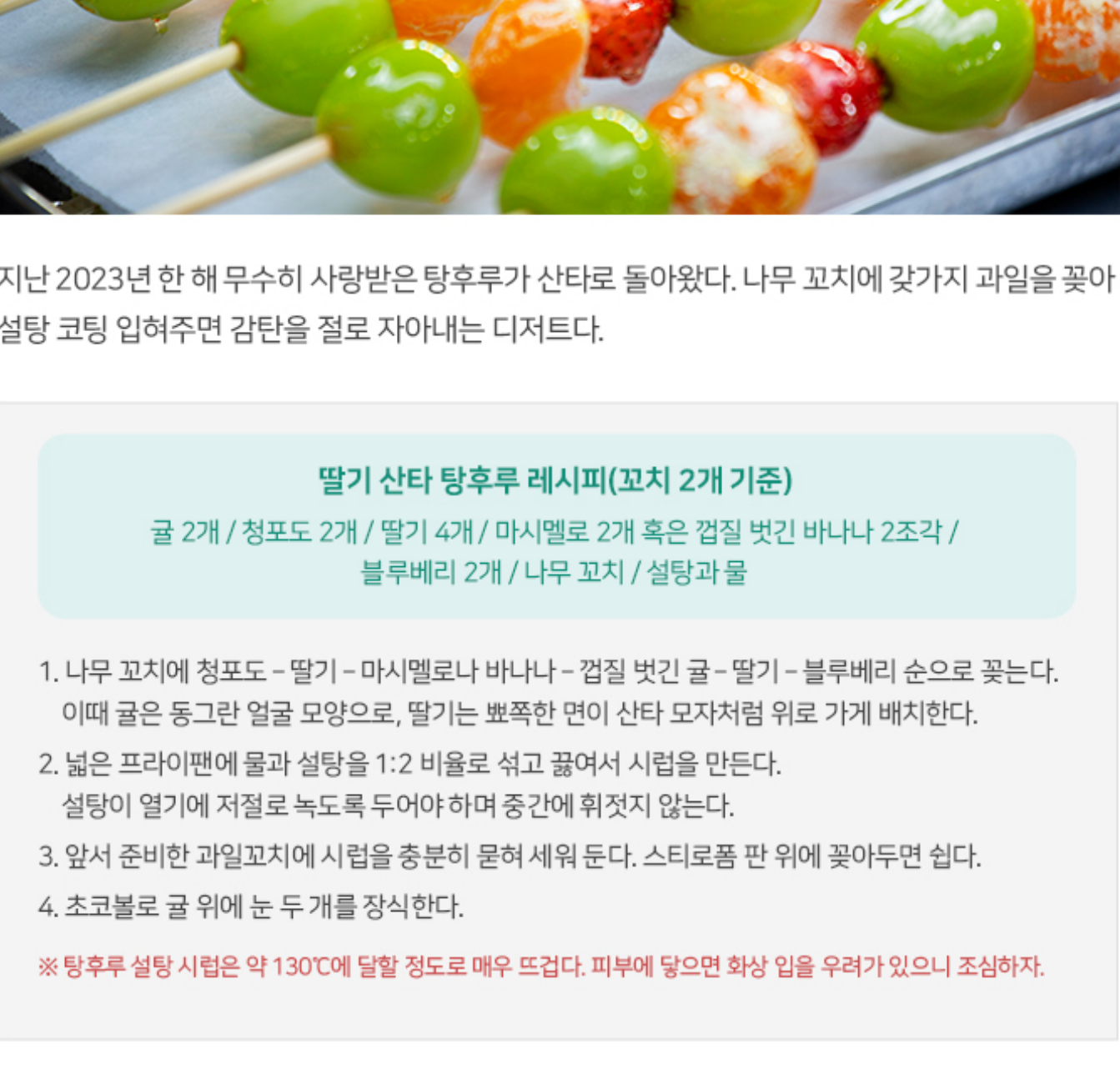
최근 SNS에선 알록달록한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베리 베리 트리가 인기다. 청포도나 사인 머스켓, 딸기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치즈 별로 장식하면 유명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못지않다.

눈사람 유부초밥 레시피(8개 기준)

네모 유부 8개 / 흰 밥 250g / 계란살 2개 / 검은깨 적당량 / 시판용 초밥 소스(설탕과 식초 1:1 비율)

1. 흰밥에 시판용 초밥 소스 혹은 설탕과 식초를 1:1로 섞은 배합 초를 1Ts 뿌려 골고루 넣고 작은 눈 모양으로 16개가량 동그렇게 말아준다.
2. 네모난 유부 안에 밥 풍치를 두 개씩 올려주고, 계란살은 가늘고 길게 찢어 꽃모양처럼 둘러준다.
3. 검은깨로 눈코 입을 장식한다.

3. 화사하게 빛나는 리스 샐러드



문 앞에 아직 크리스마스 리스를 달지 않았던 식탁에 준비하자. 싱그러운 새색 채소, 알맞이 텀스러운 석류와 블루베리 등으로 장식한 리스 샐러드가 분위기를 환하게 밝힌다.

리스 샐러드 레시피

새색 채소 1팩 / 석류알과 블루베리 적당량 / 리코타 치즈 7개

1.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낸 새색 채소를 접시 가장자리에 동그란 리스 모양으로 놓는다.
2. 붉은 석류알과 보랏빛 블루베리의 배색이 어우러지도록 새색 채소 위에 장식한다.
3. 작고 동그렇게 자른 리코타 치즈 7개를 곳곳에 뿌려 플레이팅한다.

4. 달콤한 맛으로 행복을 전하는 딸기 산타 탕후루



지난 2023년 한 해 무수히 사랑받은 탕후루가 산타로 돌아왔다. 나무 꼬치에 갖가지 과일을 꽃아 설탕 코팅 입혀주면 감탄을 절로 자아내는 디저트다.

딸기 산타 탕후루 레시피(꼬치 2개 기준)

굴 2개 / 청포도 2개 / 딸기 4개 / 마시멜로 2개 혹은 겹질 벗긴 바나나 2조각 / 블루베리 2개 / 나무 꼬치 / 설탕과 물

1. 나무 꼬치에 청포도 - 딸기 - 마시멜로나 바나나 - 겹질 벗긴 굴 - 딸기 - 블루베리 순으로 꽂는다. 이때 굵은 동그란 알갱이 모양으로 2개, 벌기는 뾰족한 면이 산타 모자처럼 위로 가게 배치한다.
2. 붉은 프라이팬에 물과 설탕을 1:2 비율로 섞고 끓여서 시럽을 만든다. 설탕이 열기에 저질러 녹도록 두어야 하며 중간에 휘젓지 않는다.
3. 앞서 준비한 과일꼬치에 시럽을 충분히 묻혀서 튀긴다. 스티로폼 판 위에 꽃아두면 쉽다.
4. 초코볼로 굴 위에 눈 두 개를 장식한다.

※ 탕후루 설탕 시럽은 약 1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입을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자.

파티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음료의 세계

1. 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자아내는 마시멜로 핫초코



컵 위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 마시멜로 눈사람이 동심, 떠올랐다. 입 안에서 달콤하게 사르르 녹는 핫초코 한 잔에 아이 얼굴이 환한 미소를 자아낸다.

마시멜로 핫초코 레시피(1잔 기준)

시판용 핫초코 가루 2Ts / 우유 300ml / 마시멜로 2개 / 초코볼 2개 / 막대 과자 5개

1. 우유를 약 80℃로 데운 다음 핫초코 가루와 섞는다.
2. 마시멜로 2개를 눈사람 모양으로 잔 위에 띄운 다음 막대 과자로 필라리를 달아 준다.
3. 마시멜로 얼굴에 초코볼과 막대 과자로 눈코 입을 장식한다.

2. 대세는 와인인 아님, 환상적인 맛의 뱅쇼



주로 유럽에서 추운 겨울 자주 마셨다는 뱅쇼는 우리나라 수정과나 배숙을 떠올리게 하는 음료로, 진한 풍미와 온기가 몸을 따스하게 녹여준다.

뱅쇼 레시피(3잔 기준)

레드 와인 1병 / 사과 · 배 · 오렌지 · 레몬 각 1개 / 통깨피 2개 / 설탕이나 꿀

1. 뱅쇼에 들어갈 과일을 깨끗이 세척한다. 특히 오렌지와 레몬은 겹질째 쓰는 만큼 베이킹 소다로 씻어 준다.
2. 잘 씻은 과일은 물기를 뺀 다음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한다.
3. 냄비에 레드 와인과 과일, 그리고 통깨피를 넣은 뒤 20~30분간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준다.
4. 완성한 뱅쇼에 설탕이나 꿀을 기호에 맞게 넣는다.

3.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면 아름다운 얼음과 함께

요즘 신조어로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하던가. 겨울이지만, 차갑고 상쾌한 화이트 와인이나 사이타 등을 즐기고 싶다면 단지 얼음으로도 우아한 분위기를 돌출 수 있다.

과일 얼음 레시피

생수 / 로즈마리 · 석류알 · 슬라이스 레몬 적당량

1. 얼음 틀에 생수를 붓고 로즈마리와 석류알, 슬라이스 레몬 등을 아름답게 배치한다.
2. 4시간 이상 미리 얼려두었다가 음료와 섞으면 좋다.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 완성!

1. 크리스마스카드로 만든 트리 아래, 꽃 피는 사랑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이 각자 미리 대상을 정해 크리스마스카드를 써서 트리를 장식해 보자. 파티 중간에 자신이 받은 카드를 찾는 재미가 있고,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과 진심을 전할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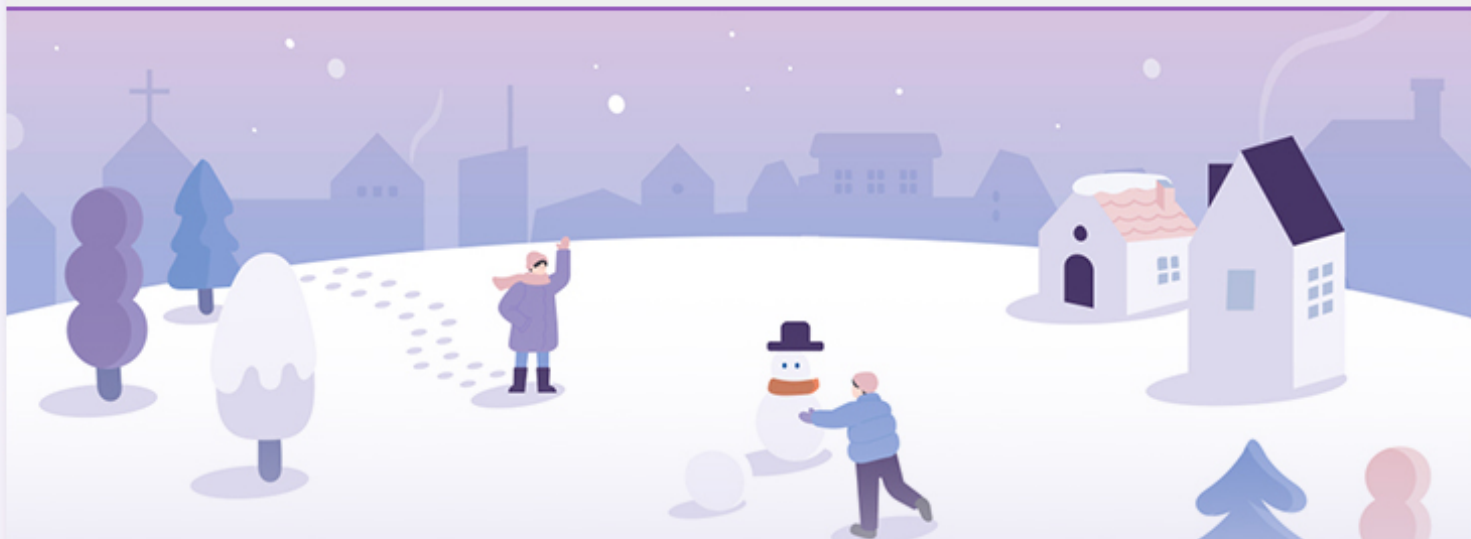
2. 진심을 나누면 행복이 두 배

크리스마스일수록 더욱 온정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낼 선물을 같이 준비해 보는 이벤트가 어떨까. 홈 파티는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 두 배의 행복으로 돌아온다.

3. 반전 선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

홈파티에서 다 같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고받는 시간은 배넉을 수 없다. 다만 규칙이 있으니 겹 포장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명품 쇼핑백 안에 와인이나 선물 상자가 큰 상자 안에 의외로 자그마한 향수가 들어 있는 식이다. 물론 어떤 선물을 고르든 기쁘게 받는 센스는 잊지 말자.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이 나라'의 공무원들을 교육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9개 과정 1,78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올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나라'를 방문하여 줄카플리 인사행정처장을 만나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과정 총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교류와 협력 강화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 나라'는 어느나라일까?

hint: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매거진>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3. 12. 15(금) ~ 2024. 01. 12(금)

응답하기